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4월 1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정치국회의에 참가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의 의정이 결정되었다.

1.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우데 대하여

2. 주체 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주체 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출할 간부문제에 대하여

4. 조직문제에 대하여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은 나라 전체 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향한 힘찬 돌격투쟁을 벌려 경제건설과 중요대상건설에서 귀중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그러나 지난해말에 발생한 비루스전염병이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경과 대륙을 횡단하는 전인류적인 대재앙으로 번져지고있는 현실은 비루스감염위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같은 환경은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초기부터 물샴없이 초특급비상방역조치를 가동하고 전국적으로 방어적대책에서의 철저한 조

직성과 일치성, 의무성을 보장함으로써 매우 안정적인 방역형세를 유지하고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의 지속적인 확산추이에 대처하여 비루스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계속 엄격하게 실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성된 대내외환경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일부 정책적과업들을 조

정변경할데 대한 대책적문제들을 연구 토의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공동결정서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우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공동결정서에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을 계속 강화해나가며 올해 경제건

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당중앙위원회 겸열위원회 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치국회의에서 공동결정서를 채택하여 중요하고도 새로운 정책들과 과업들을 제시한데 맞게 각급 당조직들과 간부들, 당원들이 더욱 각성분발하여 당중앙의 정책적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거세찬 혁명열풍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

본사기자



결과 국방력강화사업,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무력기관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단위의 투쟁과업과 방도가 밝혀져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둘째 의정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출할 《주체 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주체 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연구하고 승인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출할 간부문제에 대하여》를 심의하고 승인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보선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관하 추격습격기련대를 시찰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관하 추격습격기련대를 시찰하시었다.

언제나 뵈고싶어 고품관리길에서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며 그리던 원수님을 자기들의 련대에 모시게 된 영광과 기쁨, 행복으로 하여 전투비행사들의 가슴속에는 새찬 격정의 파도가 일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추격습격기련대 전투기들의 출격준비상태와 서부지구 평공방어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추격습격기련대가 당과 조국의 믿음에 보답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언제나 충성과 위훈의 비행

운을 새겨가며 조국의 서부지구 평공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로고를 치하하시고 련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추격습격기련대의 최우수비행사들과 만나시여 담화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의 평공은 동무들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뜨거운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면서 전투비행사들이 당과 조국을 위해 한목숨바칠 결사의 각오를 안고 우리 당이 밝힌 주체전법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비행훈련을 보다 강화하여 더 높은 전투비행술과 전투력을 갖추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호소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행한 간부

들과 함께 추격습격기련대의 비행훈련을 보시었다.

꿈결에도 뵈고싶던 원수님앞에서 자기들의 전투비행술을 보여드리게 되는 비행사들의 설레이는 마음은 푸른 창공끝에 닿아있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이 출격명령을 내리자 전투비행사들은 요란한 폭음을 울리며 대지를 박차고 하늘길에 올랐다.

먼저 전투비행사들은 원수님께서 서게시는 지휘소상공을 초저공비행으로 통과하며 전체 항공 및 반항공군장병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군력강화의 화선길을 쉬임없이 걷고 걸으시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경례를 드리었다.

이어 추격습격기련대에서는 공중목표

를 추격, 포착하여 소멸하는 공중전투훈련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추격습격기련대 전투비행사들의 용맹한 공중기동과 전투행동들을 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 훈련에서도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하늘초병들은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출격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다는것을 과시하였다. 불굴의 조국수호정신과 육탄자폭정신을 지닌 이 련대의 전투비행사들은 자기들의 높은 비행전투임무수행능력을 시위하는것으로써 평공수호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하시면서 언제나 당의 명령과 부름에 충실한 비행사들의 로고와 헌신에 깊이 감동된다고, 련대의 전체 전투비행사들과 군인들, 군인가족들

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추격습격기련대에는 원수님의 전투명령이라면 돌아올 연유대신 폭탄을 만적재하고 구름속 천리, 불길속 만리라도 뚫고나가 어떠한 공중비적과도 당당히 맞서 싸울 일당백불사조들의 전투적열의와 충천한 사기가 뿜어넘쳤다.

전체 추격습격기련대 전투비행사들과 군인들은 비행사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믿음과 정으로 풀어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원수님의 충직한 하늘초병답게 한목숨 다 바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국의 신성한 평공을 철벽으로 보위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기자

인민의 행복은 이렇게 꽃피어난다

국제사회의 눈길이 조선으로 향하고 있다. 활기를 뿜으며 우뚝이 서 있는 약탈한 제제도 흔들지 못하고 세계를 휩쓰는 무서운 병마도 스며들지 못하는 공화국의 모습을 다시금 본다.

3월의 봄리성

봄은 소리없이 찾아와 대지에 생명과 활력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해의 봄은 격동과 환희의 리성으로 벅차게, 완연하게 다가왔다.

지난 3월 17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장에 나오셔서 건설의 첫삽을 뜨시고 착공의 발과단추를 누르시었다.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숙원해은 현대적인 종합병원건설이라시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결머지고 실행하여야 할 최급성무라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만인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의 깊은 뜻을 구절구절 되새기노라면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바쳐오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서사시로 펼쳐진다.

화국에 대한 탄복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나온다. 날이 갈수록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는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서 천지개벽하는 공화국의 모습을 다시금 본다.

리성안과종합병원과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 보건산소공장, 강서약수공장, 약수목욕탕,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인민을 위해 꼭 하고 싶었던 일이라시며 일떠세워 주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 한 병원들과 행복의 별천지들이다.

이 땅의 곳곳마다 자리 잡고있는 인민의 금방석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아이들을 위해 개건된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평양육아원과 같은 육아원, 애육원들, 과학자들을 위한 연풍과학자휴양소, 미래과학자거리 그리고 려명거리, 창천거리, 삼지연시 등은 모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해 마련해주신 사랑의 금방석들이다.

머리원장 정도, 새빨간 건강의 전사도 당장건기념탑을 바라보며 신심에 넘쳐 뛰치는 모습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를 믿고계신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생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만수대인덕우에 서서여 인민의 행복천원 오늘과 밝은 래일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금 인민사랑

의 인민사랑의 높이는 창공의 끝이런가, 은장의 넓이는 우주의 광대함이런가. 래일은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기대를 안고 혹은 걱정과 불안속에 지어 한숨과 절망으로 래일을 맞고 있다.

수령님들께서 지켜보신다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 가 보면 건설자모두가 아침저녁으로 만수대인덕을 우러러보며 숭엄히 뇌이는 심장의 웨침이 있다.

그 행복속에는 인민이 주인이 된 사회주의락원에서 사는 기쁨과 영광이 있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가 생활속에 깊이 뿌리박은 일심단결의 화목한 대가정에서 사는 궁지도 있으며 제힘으로 물질문화생활을 날로 향상시켜나가는데 대한 자부심도 있다.

이 땅의 어디에나 그런 영광과 긍지를 지닌 복판은 삶이 차고넘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사상은 그대로 경애하는

그마한 격정도 불안도 없이 오직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를 믿고 따르며 신심과 행복과 긍지로 래일을 본다, 래일에 산다.

세상이 부러워하게

건설장은 말 그대로 끓어번지는 불도가나이다.

자력갱생의 힘으로 튼튼한 난관을 정면돌파해가는 치열한 격전장, 싸우는 전선이다.

적대세력들은 《정면돌파전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충격파를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 《심한 경제난이 가중되었을것》이라고 떠들며 공화국인민이 나아가는 길에 얼음물을 퍼부고있다.

편견과 억측, 모략과 날조로 엮어놓은 황실수설과 이 땅을 생존부지의 원시시대로 되돌리려는 약탈한 제재봉쇄가 공화국인민에게 조금도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알면서도 끈질기게 발악한다.

이 땅의 불빛수를 세어보며 경제적기기를 추산하는 머리로는 천만심장이 불태우는 정의와 진리, 사랑과 보고의 열도로 제어를 할수 없는 법이다. 공화국인민은 천만의 웃음을 빼앗아 변혁이는 자본주의 《호화》, 황금제책아래 숨겨진 생명으로 쌓아진 자본주의 《변영》에 침을 뱉을지 오래다.

무지개와 같은 허상을 바라보는것이 아니라 제힘으로, 제손으로 존엄과 행복의 값진 열매들을 거두어들이고 만복의 래일을 가꾸어간다.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 와서 보면 자력자강으로 마련해가는 행복의 진의미를 알수 있다.

폭 박아 들리는 함삼함삼에 광민의 웃음과 열정의 땀방울이 그득 담긴다.

원수님의 인민대제일주의로 승화되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로 이어지고있다.

세상이 부러워하게

건설장은 말 그대로 끓어번지는 불도가나이다.

자력갱생의 힘으로 튼튼한 난관을 정면돌파해가는 치열한 격전장, 싸우는 전선이다.

적대세력들은 《정면돌파전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충격파를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 《심한 경제난이 가중되었을것》이라고 떠들며 공화국인민이 나아가는 길에 얼음물을 퍼부고있다.

편견과 억측, 모략과 날조로 엮어놓은 황실수설과 이 땅을 생존부지의 원시시대로 되돌리려는 약탈한 제재봉쇄가 공화국인민에게 조금도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알면서도 끈질기게 발악한다.

이 땅의 불빛수를 세어보며 경제적기기를 추산하는 머리로는 천만심장이 불태우는 정의와 진리, 사랑과 보고의 열도로 제어를 할수 없는 법이다. 공화국인민은 천만의 웃음을 빼앗아 변혁이는 자본주의 《호화》, 황금제책아래 숨겨진 생명으로 쌓아진 자본주의 《변영》에 침을 뱉을지 오래다.

무지개와 같은 허상을 바라보는것이 아니라 제힘으로, 제손으로 존엄과 행복의 값진 열매들을 거두어들이고 만복의 래일을 가꾸어간다.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 와서 보면 자력자강으로 마련해가는 행복의 진의미를 알수 있다.

폭 박아 들리는 함삼함삼에 광민의 웃음과 열정의 땀방울이 그득 담긴다.

원수님의 인민대제일주의로 승화되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로 이어지고있다.

세상이 부러워하게

건설장은 말 그대로 끓어번지는 불도가나이다.

자력갱생의 힘으로 튼튼한 난관을 정면돌파해가는 치열한 격전장, 싸우는 전선이다.

적대세력들은 《정면돌파전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충격파를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 《심한 경제난이 가중되었을것》이라고 떠들며 공화국인민이 나아가는 길에 얼음물을 퍼부고있다.

편견과 억측, 모략과 날조로 엮어놓은 황실수설과 이 땅을 생존부지의 원시시대로 되돌리려는 약탈한 제재봉쇄가 공화국인민에게 조금도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알면서도 끈질기게 발악한다.

이 땅의 불빛수를 세어보며 경제적기기를 추산하는 머리로는 천만심장이 불태우는 정의와 진리, 사랑과 보고의 열도로 제어를 할수 없는 법이다. 공화국인민은 천만의 웃음을 빼앗아 변혁이는 자본주의 《호화》, 황금제책아래 숨겨진 생명으로 쌓아진 자본주의 《변영》에 침을 뱉을지 오래다.

무지개와 같은 허상을 바라보는것이 아니라 제힘으로, 제손으로 존엄과 행복의 값진 열매들을 거두어들이고 만복의 래일을 가꾸어간다.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 와서 보면 자력자강으로 마련해가는 행복의 진의미를 알수 있다.

폭 박아 들리는 함삼함삼에 광민의 웃음과 열정의 땀방울이 그득 담긴다.

원수님의 인민대제일주의로 승화되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로 이어지고있다.

세상이 부러워하게

건설장은 말 그대로 끓어번지는 불도가나이다.

자력갱생의 힘으로 튼튼한 난관을 정면돌파해가는 치열한 격전장, 싸우는 전선이다.

적대세력들은 《정면돌파전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충격파를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 《심한 경제난이 가중되었을것》이라고 떠들며 공화국인민이 나아가는 길에 얼음물을 퍼부고있다.

편견과 억측, 모략과 날조로 엮어놓은 황실수설과 이 땅을 생존부지의 원시시대로 되돌리려는 약탈한 제재봉쇄가 공화국인민에게 조금도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알면서도 끈질기게 발악한다.

이 땅의 불빛수를 세어보며 경제적기기를 추산하는 머리로는 천만심장이 불태우는 정의와 진리, 사랑과 보고의 열도로 제어를 할수 없는 법이다. 공화국인민은 천만의 웃음을 빼앗아 변혁이는 자본주의 《호화》, 황금제책아래 숨겨진 생명으로 쌓아진 자본주의 《변영》에 침을 뱉을지 오래다.

무지개와 같은 허상을 바라보는것이 아니라 제힘으로, 제손으로 존엄과 행복의 값진 열매들을 거두어들이고 만복의 래일을 가꾸어간다.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 와서 보면 자력자강으로 마련해가는 행복의 진의미를 알수 있다.

폭 박아 들리는 함삼함삼에 광민의 웃음과 열정의 땀방울이 그득 담긴다.

원수님의 인민대제일주의로 승화되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로 이어지고있다.

세상이 부러워하게

건설장은 말 그대로 끓어번지는 불도가나이다.

자력갱생의 힘으로 튼튼한 난관을 정면돌파해가는 치열한 격전장, 싸우는 전선이다.

적대세력들은 《정면돌파전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충격파를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 《심한 경제난이 가중되었을것》이라고 떠들며 공화국인민이 나아가는 길에 얼음물을 퍼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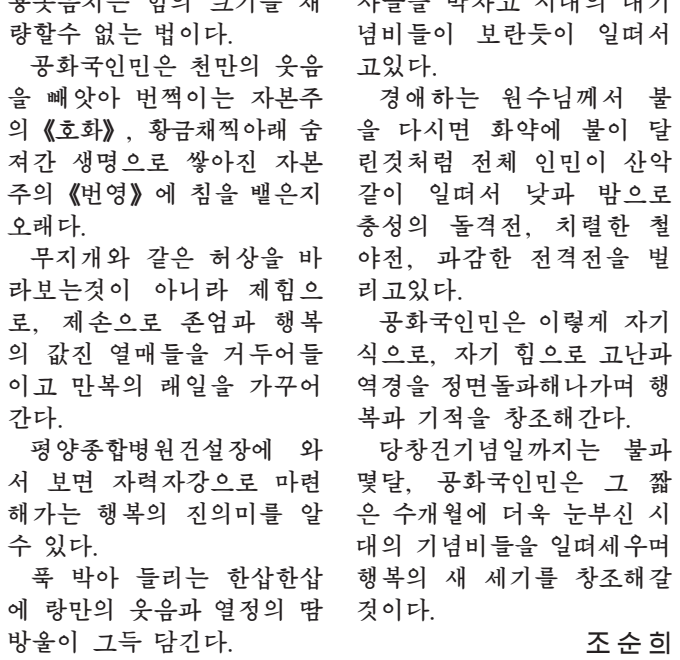
편견과 억측, 모략과 날조로 엮어놓은 황실수설과 이 땅을 생존부지의 원시시대로 되돌리려는 약탈한 제재봉쇄가 공화국인민에게 조금도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알면서도 끈질기게 발악한다.

이 땅의 불빛수를 세어보며 경제적기기를 추산하는 머리로는 천만심장이 불태우는 정의와 진리, 사랑과 보고의 열도로 제어를 할수 없는 법이다. 공화국인민은 천만의 웃음을 빼앗아 변혁이는 자본주의 《호화》, 황금제책아래 숨겨진 생명으로 쌓아진 자본주의 《변영》에 침을 뱉을지 오래다.

무지개와 같은 허상을 바라보는것이 아니라 제힘으로, 제손으로 존엄과 행복의 값진 열매들을 거두어들이고 만복의 래일을 가꾸어간다.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 와서 보면 자력자강으로 마련해가는 행복의 진의미를 알수 있다.

폭 박아 들리는 함삼함삼에 광민의 웃음과 열정의 땀방울이 그득 담긴다.



명랑하키와 인민

평도자와 인민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속에 지금 수도의 중심부에서 건설이 한창이고있는 평양종합병원은 대동강변에 위치하고있다.

이곳에서 머리를 조금 들어 앞을 바라보면 대동강이 푸른 구슬 드리운듯 반짝이며 흐르고 그 건너편에는 만수대인덕이 높이 모서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이 숭엄하게 안져있다.

뒤를 돌아보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이 틀어쥔 마치고 낮과 밤을 형상한 당장기념탑의 탑신이 하늘높이 치솟아있다.

어머니수령님들께서 사랑과 정을 담아 언제나 지켜보아주시고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쁨이 어머니의 치마폭인양 포근히 감싸안아주는 데없이 따뜻한 이곳에 인민을 위한 선진적인 종합병원인 평양종합병원이 일떠서고 있는것이다.

평양평면으로 세상에 소문난 옥류관도 지적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고 물의 궁전, 문수물놀이장에서 터치는 인민의 기쁨넘친 웃음소리도 귀전에 들려오는 이곳이다.

고려시대의 시인 김황진이 대동강변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진 성벽기슭으로 가는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넓은 벌 동쪽에는 접점이 산이 있네》라고 시를 절반 지어 놓았으나 그 아름다움을 다 담을수 없어서 그만 붓대를 던지고 통곡하였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긴 부벽루도 손을 뻗치면 금시 닿을듯 하다.

명당자리면 이보다 더 좋은 명당자리가 또 있겠는가. 이런 자리에 오는 10월이면 완공될 종합병원에서의 의료상방조를 마음껏 받을 공화국의 인민들은 얼마나 복받은 인민들인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땅의 주인도, 명당의 주인도 인민이다.

지금 공화국에서 경제적으로도 편리하고 모든 측면에서 나무랄데 없는 좋은 자리에는 다 인민을 위한 건 축물들이 시대의 기념비인양

곳에서 머리를 조금 들어 앞을 바라보면 대동강이 푸른 구슬 드리운듯 반짝이며 흐르고 그 건너편에는 만수대인덕이 높이 모서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이 숭엄하게 안져있다.

뒤를 돌아보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이 틀어쥔 마치고 낮과 밤을 형상한 당장기념탑의 탑신이 하늘높이 치솟아있다.

어머니수령님들께서 사랑과 정을 담아 언제나 지켜보아주시고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쁨이 어머니의 치마폭인양 포근히 감싸안아주는 데없이 따뜻한 이곳에 인민을 위한 선진적인 종합병원인 평양종합병원이 일떠서고 있는것이다.

평양평면으로 세상에 소문난 옥류관도 지적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고 물의 궁전, 문수물놀이장에서 터치는 인민의 기쁨넘친 웃음소리도 귀전에 들려오는 이곳이다.

고려시대의 시인 김황진이 대동강변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진 성벽기슭으로 가는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넓은 벌 동쪽에는 접점이 산이 있네》라고 시를 절반 지어 놓았으나 그 아름다움을 다 담을수 없어서 그만 붓대를 던지고 통곡하였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긴 부벽루도 손을 뻗치면 금시 닿을듯 하다.

명당자리면 이보다 더 좋은 명당자리가 또 있겠는가. 이런 자리에 오는 10월이면 완공될 종합병원에서의 의료상방조를 마음껏 받을 공화국의 인민들은 얼마나 복받은 인민들인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땅의 주인도, 명당의 주인도 인민이다.

지금 공화국에서 경제적으로도 편리하고 모든 측면에서 나무랄데 없는 좋은 자리에는 다 인민을 위한 건 축물들이 시대의 기념비인양

때 남산재를 수도의 중심부로 정하고 그곳을 축으로 도시를 형성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시면서 그 남산재만은 굳이 빈터로 남겨두게 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앞을 바라보면 대동강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한옆으로 돌아서면 모란봉의 전경과 문수물놀이대가 한눈에 안겨오는 남산재는 그야말로 명당자리였다.

세월이 흘러 그 주변에 크고작은 건물이 많이 일떠서고 그 좋은 자리에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청사를 무게있게 들어앉힌 설계안을 만든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대변에 밀어놓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연례 중심광장에는 박물관이나 회관, 도서관, 문화궁전과 같은 인민을 위한 건물을 놓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두달후인 그해 12월 중순 몸소 남산재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들에게 모든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속에서 수도 명랑 중심부의 명당자리에도 인민을 위한 창조물이 일떠서기 시작했다.

주체62(1973)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모란봉에 오르시여 평양의 전경을 부감하시다가 동행한 일군들에게 저기에 무슨 건물을 앉혔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산재를 가리키고계셨다.

일군들은 섣뜻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평양시복구건설계획도를 작성할

이제는 이곳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평양에는 이미 문화궁전도 있고 학생소년궁전도 있으니 여기에는 도서관을 하나 크게 짓자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되면 학생소년궁전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여기서는 어른들이 공부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여기 남산재에 도서관을 앉히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수십년을 두고 공지로 남아있던 남산재에 그이께서 손수 지어주신 《인민대학습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전민학습의 대전당이 조선식건물로 일떠서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어 명당자리에도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명당자리의 주인으로 된 인민들의 행복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보살피심속에 더욱 활짝 꽃

게 하시였다.

동해의 명승 송도원의 일구, 그앞에는 시원스레 펼쳐진 맑고 푸른 바다, 뒤에는 장덕산.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기에 야외극장을 건설하면 좋겠다고, 경지도 좋고 건설하기도 간단하다고, 앞에는 시원하게 바다가 보이고 옆에는 송도원이 있어 정말 좋다고 하시였다.

정말 명당자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외극장은 유원지에도 건설하는것이 좋다고, 그레야 근로자들이 일요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송도원에 와서 낮에는 해수욕도 하고 소나무밑에서 점식식사도 하며 그 다음에는 식물원과 동물원도 돌아보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외극장에 들려 예술공연이나 영화를 볼수 있다고 하시며 그렇게만 되면 그이상 더 리상적인 휴식은 없을것이라고 하시였다.

명당자리의 주인으로 된 인민들의 행복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보살피심속에 더욱 활짝 꽃

몸소 확정해주신 중앙종합병원터전

주체37(1948)년 3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함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와 어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동평양변에 나오시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며칠째 이곳을 돌아보시면서 중앙종합병원(당시)건설에 알맞은 곳을 보아두셨다가 보고드리시였다.

이날 병원터전을 확정해주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이 넓어 큰 병원을 건설하기에 적당하다고, 이만한 부지면적으로 병원을 더 크게 확장하는데도 결릴것이 없다고 만족해 하시였다.

그러시고 수령님께서 저쪽에는 경마장이 있으면 병원을 여기에 짓는것이 좋겠다고, 건물을 남향으로 앉히면 방에 햇빛이 잘 들어와 좋을것이고 도로가 옆에 있어서 병원에 찾아가는 환자들의 교통도 편리할것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은 해방전에 돈이 없어 병원문전에도 가지 못하고 숨지곤 하였다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이 없다고, 우리의 인민병원들은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라고 강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확정해주신 이곳에 일떠설 인민의 종합병원의 모습이 일군들의 눈앞에 안겨왔다.

본사기자 주일봉



연풍과학자휴양소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오늘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은 민족이 대단 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2돛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7(1998)년 4월 18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먼저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나라의 통일위업에 쌓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또한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이라는 것을 명시하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에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 반동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해내의 온 민족의 래왕과 접촉, 대화와 련대연합을 널리

실현할데 대한 민족대단결5대 방침이 천명되어있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원칙적문제를 비롯하여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나라의 통일위업에 쌓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또한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이라는 것을 명시하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단결의 기초와 리념, 그 실현을 위한 파업과 방도들을 밝힌것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해내의 우리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을 민족대단결의 휘황한 진로를 밝힌 강령적지침으로 높이 찬양하면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북, 남, 해외 3자의 련대연합이 한층 강화되는 속에 지난 기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온 민족이 함께 하는 거족적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내

외분렬주의세력의 반동일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령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령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모든 문제에서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외부의 어떤 압력과 공갈에도 굴함없이 자주적대와 민족우선, 민족옹호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사대매국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반대하여 결연히 투쟁하여야 한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는 여기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은 겨레는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은 민족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동일책행동들을 단결된 힘으로 짓부셔버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며 련대연합하여 공동행동을 벌려나가기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동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짓부셔버리고 자주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것이다.

김장호

파쇼 《정권》을 무너뜨린 4월인민봉기

외세의 식민지 파쇼통치가 빛이 난 모든 사회악과 극심한 생활고에 더는 참을수 없게 된 남조선인민들은 1960년에 들어와 외세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투쟁에 떨쳐나섰다. 그 도화선으로 된것은 리승만독재 《정권》이 파쇼책들을 연장하기 위해 감행한 3.15부정선거였다. 1960년 3월 15일 리승만은 온갖 테러와 협잡을 감행하여 자기의 《대통령 4선》과 리기봉의 《부대통령 당선》을 날조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쌓여온 분노를 폭발시켰다. 투쟁의 불길은 마산에서부터 타올랐다. 협잡선거의 더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격분을 참지 못한 경상남도 마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은 《협잡선거 물리치고 공명선거 실시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삼일적인 군중이 총탄과 최루탄을 마구 발사하는 속에서도 투쟁은 날로 더욱 확대되어갔다. 4월 11일 마산앞바다에서 최루탄에 맞아 무참히 학살된 김주열학생의 시체가 발견된것을 발단으로 제2차 마산봉기가 일어나고 여기에는 수만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마산봉기는 곧 서울과 남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조선의 기타 도시들에도 파급되어 전인민적인 봉기로 발전하였다. 4월 18일 4 500여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학교마당에 모여 집회를 가지고 남조선 100만학도의 총열기를 호소하였다. 그들은 호소문에서 《불의와 부정에 반기를 드는 공동성을 지닌 우리들 학도는 이이상 머물러 있을수 있겠는가. 자유, 정의, 진리를 신봉하는 우리들 100만학도는 일어서자. 력사가 우리에게 준 사명을 완수할 시기는 온것이다. 힘을 모아 민주러전 투자.》고 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수천명의 학생들이 시위투쟁에 합세하였다. 시위학생들은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들과 맞서싸우면서 《국회의사당》 앞까지 진출하여 통성투쟁에 들어갔다. 분노의 합성 하늘을 찌르는 남당명을 진감하고 세계적범위로 메아리쳐갔다. 남조선군의 일부 병사들도 병영을 박차고 거리에 나와 시위군중의 편에 서서 시위

를 벌리었다. 4월인민봉기에는 남조선의 80여개 지역에서 청년학생들과 로동자, 농민, 도시빈민, 녀성들, 소년들을 비롯하여 135만여명의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였으며 거기에는 300여개의 각급 학교들도 포함되었다. 인민들의 대중적인 봉기에 의해 마침내 독재의 아성은 무너지게 되었다. 외세의 주구가 되어 민족분열고정화를 위한 범죄적인 《단선단정》책동에 앞장서고 반동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을 조작하여 자주와 민주, 통일을 외치는 의로운 인민들을 다치는대로 탄압학살해온 리승만은 민심의 저주와 규탄속에 해외로 쫓겨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4월인민봉기는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쇼통치를 밀부리체 뒤집어엎어놓았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운동사에 지울수 없는 한페이지를 새기었다. 본사기자 김영진



투쟁에 떨쳐나선 봉기군중들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주체81(1992)년 2월초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마주하시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조국통일도 남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거밖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누구나 다 고려민족으로서의 넋을 지니고있기때문에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당자들이 우리 민족이 수십여년동안이나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았기때문에 민

족성이 이질화되었다고 하지만 괴롭힘으로 보나 미공망속으로 보나 우리 인민의 민족성은 이질화되지 않았다고, 오늘이 음력설날이어서 그런지 서울 시내에도 조선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계속되었다. 《고려민족의 넋을 지니고있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이라면 그거밖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누구나 다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나라가 통일되면 우리 민족은 더욱 존엄있고

힘있는 민족으로 될것이며 우리 나라의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대한 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 세계에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계속하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는 고려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북과 남, 해외에 있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 민족의 최대속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민족성인들이 지닌 사명감을 절절히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들으며 일군들은 민족대단결위업실현에 자기들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리라는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품에 안겨

영화계의 보배로 내세워준 파사로운 은성

박병수, 그는 공화국에서 지난 세기 70년대 초 영화혁명의 불길 이 타날때에 영화촬영에 한문한 재능있는 촬영가였다. 그가 살던 곳은 원래 남조선이었다.

1914년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몹시 좋아했다. 하지만 완고한 아버지의 반대로 일본 와세다대학 정경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술에 대한 남다른 취향과 포부를 접할수 없었던 그는 어느 한 미술연구소에 들어가 직심스럽게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림그리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나라가 해방되자 그는 나름대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 미술재능을 키워낼 꿈을 안고 파수원을 팔아 동광미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 피문은 군화발을 들이놓은 외세의 폭압정치는 그의 소중한 꿈을 애초에 짓밟아버리었다. 박병수는 자기의 모든 정력과 재부를 깡그리 바쳐가며 전념하던 미술연구와 창작의 길이 이미 벼랑끝에 몰렸음을 절감하였지만 출로는 묘연하였다.

그러던 그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새 조국건설로 들끓는 북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당시 남조선에서는 유명인사들이 김정일장군님을 만나 뵈고 귀중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앞을 다투어 북행길에 오르코있었다. 하지만 섣뜻 걸음을 북으로 옮길수 없

었다. 대지주의 아들인 자기를 북에서 어떻게 대해주겠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그에게 인생전환의 행운이 차레지게 되었다. 1948년 7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어느 한 미술연구소에 들어가 직심스럽게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림그리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선거후 그는 자주의 넋이 살아있고 통일애국의 숨결이 드는 평양에 그대로 남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리라 결심하였다. 비록 남조선에는 자기의 이해와 자식을 잊고있고 많은 재부도 있었지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안락한 삶이 아닌 민족을 위해 사는 값있는 생을 택했기에 공화국의 품에 용감히 자기 운명을 맡기게된 것이다.

군로하는 인민이 땅과 공장, 나라의 주인이 되어 새 조국건설을 힘차게 떠밀어가는 광경은 그를 무한히 흥분시켰고 이 력사적인 장면을 밑에 새 조국건설로 들끓는 북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당시 남조선에서는 유명인사들이 김정일장군님을 만나 뵈고 귀중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앞을 다투어 북행길에 오르코있었다. 하지만 섣뜻 걸음을 북으로 옮길수 없

을 촬영하여 공화국의 영화예술발전에 기여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어 1960년대 초 우리 나라 영화촬영가들중에서 남먼저 공훈에술가칭호를 안겨주도록 하시었다.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여주시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박병수는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중국의 장물화는 행운이었다. 그는 우리 수령님 같은 인민의 영향을 받아 보람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늘 장물화가 부러웠다. 나도 수령님의 품을 찾아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이다. 그러나 나도 조선의 행운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렇듯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평범한 촬영가였던 박병수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촬영가로 성장하였다. 그의 삶의 자욱자욱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남다른 사랑도 뜨겁게 깃들여 있었다.

전화의 날날 그가 촬영한 화면들이 기록영화 《전세계에 고함》(1950년)에 편집되었다. 전후에 그는 예술영화 《산맥》과 《빨간 댕기》를 촬영하였다. 1960년대에는 《붉은 선동원》(1962년), 《백일홍》(1963년), 《대지의 아들》(1963-1964년), 《최하신의 일가》(1966년)를 비롯한 많은 예술화들

을 촬영하여 공화국의 영화예술발전에 기여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어 1960년대 초 우리 나라 영화촬영가들중에서 남먼저 공훈에술가칭호를 안겨주도록 하시었다.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여주시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박병수는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중국의 장물화는 행운이었다. 그는 우리 수령님 같은 인민의 영향을 받아 보람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늘 장물화가 부러웠다. 나도 수령님의 품을 찾아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이다. 그러나 나도 조선의 행운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렇듯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평범한 촬영가였던 박병수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촬영가로 성장하였다. 그의 삶의 자욱자욱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남다른 사랑도 뜨겁게 깃들여 있었다.



박병수 선생

후에도 우리 나라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고 격정에 겨워 말하였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해도 눈시울을 적시었다. 박병수가 창작성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믿음과 세심한 지도의 결과였다. 그런데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는 그 모든 공로를 고스란히 그에게 돌려주시는 것이었다. 박병수는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장군님의 믿음에 가슴깊이 충정할 일념으로 지혜와 열정을 영화촬영에 다 바쳤다.

그는 원래 말이 없고 딱한 성미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촬영현장에 나오신 날에는 노상 웃음을 거두지 못하고 신바람이 나서 촬영기를 다루곤 하였다. 언제인가 먼바다에서 그의 촬영모습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저 동무가 더 늙지 말아야 하겠는데, 어데서 저런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다정한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가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한껏 누릴수 있었다. 아끼고 내세워주던 영화촬영가가 끝내 숨을 거

두었다는 비보를 받은 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박병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화한 예술영화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들을 촬영한 공로있는 촬영가였다고, 정말 가까운 동무를 잃었다고, 우리는 그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대로부터 몇해가 지난 어느해 여름 한 예술작품을 지도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에 대해 또 다시 추억해주시었다. 주체73(1984)년 어느 한 나라에서 세계영화평원람출판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이름있는 영화예술인들에 대한 영화창조세계에 맞는 촬영기법을 완성하기 위해 피타게 사색하고 노력하였다. 재능있는 영화촬영가로 거듭진 승장은 영화화폭들을 력사에 남긴 그가 그만 불치의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치료대책을 세워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그의 병상대를 료해하시면서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그가 6개월동안 환자생활을 하였기때문에 사회보장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일군들에게 그러지 말고 직제를 그냥 두고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다정한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가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한껏 누릴수 있었다. 아끼고 내세워주던 영화촬영가가 끝내 숨을 거

두었다는 비보를 받은 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박병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화한 예술영화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들을 촬영한 공로있는 촬영가였다고, 정말 가까운 동무를 잃었다고, 우리는 그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대로부터 몇해가 지난 어느해 여름 한 예술작품을 지도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에 대해 또 다시 추억해주시었다. 주체73(1984)년 어느 한 나라에서 세계영화평원람출판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이름있는 영화예술인들에 대한 영화창조세계에 맞는 촬영기법을 완성하기 위해 피타게 사색하고 노력하였다. 재능있는 영화촬영가로 거듭진 승장은 영화화폭들을 력사에 남긴 그가 그만 불치의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치료대책을 세워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그의 병상대를 료해하시면서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그가 6개월동안 환자생활을 하였기때문에 사회보장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일군들에게 그러지 말고 직제를 그냥 두고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다정한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가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한껏 누릴수 있었다. 아끼고 내세워주던 영화촬영가가 끝내 숨을 거

두었다는 비보를 받은 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박병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화한 예술영화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들을 촬영한 공로있는 촬영가였다고, 정말 가까운 동무를 잃었다고, 우리는 그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대로부터 몇해가 지난 어느해 여름 한 예술작품을 지도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에 대해 또 다시 추억해주시었다. 주체73(1984)년 어느 한 나라에서 세계영화평원람출판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이름있는 영화예술인들에 대한 영화창조세계에 맞는 촬영기법을 완성하기 위해 피타게 사색하고 노력하였다. 재능있는 영화촬영가로 거듭진 승장은 영화화폭들을 력사에 남긴 그가 그만 불치의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치료대책을 세워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그의 병상대를 료해하시면서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그가 6개월동안 환자생활을 하였기때문에 사회보장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일군들에게 그러지 말고 직제를 그냥 두고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다정한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가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한껏 누릴수 있었다. 아끼고 내세워주던 영화촬영가가 끝내 숨을 거

두었다는 비보를 받은 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박병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화한 예술영화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들을 촬영한 공로있는 촬영가였다고, 정말 가까운 동무를 잃었다고, 우리는 그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대로부터 몇해가 지난 어느해 여름 한 예술작품을 지도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에 대해 또 다시 추억해주시었다. 주체73(1984)년 어느 한 나라에서 세계영화평원람출판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이름있는 영화예술인들에 대한 영화창조세계에 맞는 촬영기법을 완성하기 위해 피타게 사색하고 노력하였다. 재능있는 영화촬영가로 거듭진 승장은 영화화폭들을 력사에 남긴 그가 그만 불치의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치료대책을 세워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그의 병상대를 료해하시면서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그가 6개월동안 환자생활을 하였기때문에 사회보장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일군들에게 그러지 말고 직제를 그냥 두고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다정한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가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한껏 누릴수 있었다. 아끼고 내세워주던 영화촬영가가 끝내 숨을 거

두었다는 비보를 받은 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박병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화한 예술영화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들을 촬영한 공로있는 촬영가였다고, 정말 가까운 동무를 잃었다고, 우리는 그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대로부터 몇해가 지난 어느해 여름 한 예술작품을 지도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에 대해 또 다시 추억해주시었다. 주체73(1984)년 어느 한 나라에서 세계영화평원람출판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이름있는 영화예술인들에 대한 영화창조세계에 맞는 촬영기법을 완성하기 위해 피타게 사색하고 노력하였다. 재능있는 영화촬영가로 거듭진 승장은 영화화폭들을 력사에 남긴 그가 그만 불치의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치료대책을 세워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그의 병상대를 료해하시면서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그가 6개월동안 환자생활을 하였기때문에 사회보장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일군들에게 그러지 말고 직제를 그냥 두고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다정한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가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한껏 누릴수 있었다. 아끼고 내세워주던 영화촬영가가 끝내 숨을 거

본사기자

시초

만복이 꽃피는 땅에서 부르는 노래

김영일

동해의 물결이 노래합니다

동해의 물결이 노래합니다
우리 조국의 북변
중평땅의 온실바다 너무도 회한하여
낮에도 밤에도 능글능실
알타루어 파도가 물결쳐옵니다

동해의 기슭엔 명소도 많아
칠보산과 집삼, 엄분진...
어딜 가나 절승경계가진만
오늘은 수수천년 불수 없었던 땅
의 바다
황홀하여 파도가 춤을 추는것입니까

동해의 물결이 노래합니다
우리 조국의 북변
중평땅의 온실바다
우에 사시절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져
땅위에 생긴 바다가 부럽습니다
그우로 끝없이 달려가고싶어
파도도 춤을 추며 물결보라를 뿌려
줍니다

축배 축배를 들고있네
복받은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레일을
위해

사람들이 터치는 즐거운 폭소에
신부는 그만 부끄러워 머리숙이는데
정색하여 신랑이 하는 말
이제 다 원수님 주신 복이라네

그래그래 신랑의 말이 좋아
남새온실농장 양묘장 새 집모두가
우리 원수님 안겨주신 복이지
우리모두 받아안은 만복이지
아, 달도 부러워 못 떠나는 중평의
밤이여!

—아, 그렇구말구
신랑이 복을 받았지
중평땅에서 제일 고운 꽃같은
색시에

궁궐같은 새 집이랑
엮어져도 떡합지에 엮어져소

그들이 썩썩하게 노래부르며 오던 길로
오늘은 도시의 꽃같은 처녀들 오누나
사랑의 바다에 흰 갈매기처럼 날아드
누나

누구나 부러워하는 농장에 오는 반
가운이들
아이들은 환성을 울리고
농장원들 꽃목걸이 꽃송이 안겨주
는데
이것 봐라 양묘장의 총각들 텀치도



없이
별써부터 꽃은 나비처럼 기웃거리네
보금자리 펴 인민들 모습 그려보시며
환하게 지으시던 어버이의
미소여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온실의 바다
해빛에 은빛광채 눈부시더니
밤이면 달빛이 살포이 내려앉아
금으로 물드는 경관도 호못합니다
땅속에서 솟았다 하늘에서 내렸나
예전의 땅이건만 그 땅이 아닌듯

동해의 물결이 노래합니다
우리 조국의 북변 중평땅의 온실바다
그우에 사시절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져
땅위에 생긴 바다가 부럽습니다
그우로 끝없이 달려가고싶어
파도도 춤을 추며 물결보라를 뿌려
줍니다

오늘은 농장의 휴식일
《손님맞이》로 흥성이는 농장마을
도시의 대학졸업생처녀들
중평땅의 교원, 의사 되려고 찾아
오는
이들을 어이 꽃다발없이 반길수 있
으랴

어제는 끝없는 병사들
고향에 제대배낭 풀어 온 농장이 들썩
이더니

그들이 썩썩하게 노래부르며 오던 길로
오늘은 도시의 꽃같은 처녀들 오누나
사랑의 바다에 흰 갈매기처럼 날아드
누나

누구나 부러워하는 농장에 오는 반
가운이들
아이들은 환성을 울리고
농장원들 꽃목걸이 꽃송이 안겨주
는데
이것 봐라 양묘장의 총각들 텀치도

종이나 좋아
도시의 처녀교원 처녀의사
부부는 꿈을 안고 찾아오는 중평땅
청춘의 희망과 리상의 노를 마음껏
저어가거라
아, 이 땅의 레일은 얼마나 맑은가

오실 때는 서둘러 오시었던만
가실 때는 왜 그리도 쉬이 떠나지
못하셨던가
다시 오래도록 돌의자에 앉으시어
불받은 창가 바라보신 원수님
그이 마음속엔 들려왔어라 인민의
웃음소리

보십시오
중평의 행복한 밤
도시도 부러워할 멋쟁이 농장마을
온실바다 누비던 휘영청 밝은 달
불받은 집집의 창가 기웃거리네

동해의 물결이 노래합니다
우리 조국의 북변 중평땅의 온실바다
그우에 사시절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져
땅위에 생긴 바다가 부럽습니다
그우로 끝없이 달려가고싶어
파도도 춤을 추며 물결보라를 뿌려
줍니다

오늘은 농장의 휴식일
《손님맞이》로 흥성이는 농장마을
도시의 대학졸업생처녀들
중평땅의 교원, 의사 되려고 찾아
오는
이들을 어이 꽃다발없이 반길수 있
으랴

4 계절 푸르른 고장
봄비를 맞으며 남새상점 들어서니
한쪽에는 생신한 빨간 고추 쌓여
있어
아, 풍요한 가을풍경
가슴은 절로 흐뭇해진다오

푸른 남새 붉은 열매를 정리 쓸어
보며
노래부르듯 누구나 하는 말
—우리 중평온실남새야!
남새가 귀하던 땅에 남새풍년
사시절 푸르른 계절을 노래하는 땅

중평의 인민들 금방석에 앉히게 된것이
그처럼 기쁘시어 환히 웃으신 우리
원수님
그이 마음속엔 중평만이 있었던가
은 나라 인민들에게 안겨주실
행복의 바다가 끝없이 물결치지
않았던가

기쁨도 노래도 많은 집
유난히 웃음소리 높아
그만 창가에서 떠날줄 모르네

동해의 물결이 노래합니다
우리 조국의 북변 중평땅의 온실바다
그우에 사시절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져
땅위에 생긴 바다가 부럽습니다
그우로 끝없이 달려가고싶어
파도도 춤을 추며 물결보라를 뿌려
줍니다

어제는 끝없는 병사들
고향에 제대배낭 풀어 온 농장이 들썩
이더니

다른쪽엔 알알이 붉게 익은 도마도
어느새 손에 쥐고 기뻐서 웃는 아이
엄마도 함께 웃고있소
배추, 무우, 풋고추, 오이...
가득 담긴 광주리엔 여름이 들어왔
았다고

북변이라 추위가 제일먼저 찾아와
제일 추운 곳이라 하지 마오
따사로운 사랑에 사는 북변사람들
이러오
끝간데 없이 펼쳐진 온실바다
언제나 봄빛이 넘쳐 봄날에만 산
다오

그날의 원수님미소 어려서인가
우리 원수님 돌의자에 앉으시어
바라보신 집집의 창가들엔
오늘도 해빛이 눈부시어라



웃음꽃 피는 남새상점
가슴이 뜨거워라
잊지 못할 그날 그밤에
우리 원수님 앉으셨던
수수한 돌의자를 더듬는 인민의 마음
이여

처음에 나무를 심고 가
꾸는 일은 김선비녀성에
게 있어서 생소한것이였
다고 한다. 예이런 나무모
가 죽으면 다시 심기를 그
몇번... 땅에 묻은 씨앗들
이 싹트지 않아 안타까와
눈물을 흘린적도 많았다고
한다.

해빛밝은 창가가 이야기하노라
그날 우리 원수님 돌의자에 앉으시어
금방석에 앉힐 은 나라 인민들
생각하시었다고
아, 금방석과 돌의자
오늘도 뜨겁게 안아보는 중평의
돌의자여!

《매일같이 어머니가 밤
늦도록 과학기술서적을 읽
군 하여 한번은 나무를 심
고 가꾸는 일이야 경험으로
도 되지 않는가, 밤이 깊었
는데 쉬라고 권고한적이 있

그때를 회상하여 김선비녀
성의 만말 송향춘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수령님들께서 자기가
가꾼 꽃과 나무들을 굿어보
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
으실것만 같다는 김선비녀성
을 보며 기자는 다시금 새
겨안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인 온 나라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4월이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많은 사람
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찾아와 두봉화, 황
목련, 백목련, 고양나무를 비
뚝하여 갖가지 진귀한 나무

들을 옮겨심고있다. 이들이
운내는 대성구역 려명동에서
사는 김선비(73살)녀성과 그
의 남편 송영철(75살)도 있
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
없는 그리움을 안고 오래전
부터 금수산태양궁전주변 수
목원에서 나무를 가꾸어오고
있는 김선비녀성을 《통일신
보》 기자가 만났다.

달래다 돌아앉아 치마자락으
로 눈금을 훑으면서도 한줌
의 거름이라도 더 많이 포전
에 내기 위해 아글라글 예썩
은테 대해 둘러주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
리움을 안고 포전에 뿌려가
는 땀방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어깨에 실린 로고
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수
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
쁨이 없다는 공민적자각을
안고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겨는 그였다.

《매일같이 어머니가 밤
늦도록 과학기술서적을 읽
군 하여 한번은 나무를 심
고 가꾸는 일이야 경험으로
도 되지 않는가, 밤이 깊었
는데 쉬라고 권고한적이 있

《매일같이 어머니가 밤
늦도록 과학기술서적을 읽
군 하여 한번은 나무를 심
고 가꾸는 일이야 경험으로
도 되지 않는가, 밤이 깊었
는데 쉬라고 권고한적이 있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인 온 나라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4월이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많은 사람
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찾아와 두봉화, 황
목련, 백목련, 고양나무를 비
뚝하여 갖가지 진귀한 나무

포전길 걸으시던
수령님을 그리며
얼마전 기자가 찾아간 곳
은 만경대남새농장 농산
작업반이었다. 이곳에서도
봄철을 맞아 비뚝관세뿌리기
가 한창인데 농장원들과 함
께 일하는 김선비녀성의 모
습이 보였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잘로써
우리 장군님을 더 잘 받들
겠다고 하면서 농장원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토의끝에
남새작업반에서 일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였습니다. 하지
만 선비어머니는 자기는 꼭
농산작업반에서 일하겠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인민들
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
이시려 그토록 마음써오신
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워갈
일념을 안고 우리 농장에
자원하여온 선비어머니였던
것입니다.》

20년세월 꽃과
나무를 가꾸며
기자는 숲의 바다를 펼치
고 끝없이 펼쳐지는 금수산
태양궁전주변 수목원을 걷고
있었다.
어느 계절이나 자기의 특
색한 풍치가 있지만 이곳 수
목원의 4월은 참으로 류다른
정서를 불러일으켜주었다.
연두빛을 띤 떨쳐입은 나무
잎들이며 파릇파릇 돌아난
잔디, 꽃잎들에서 풍기는 봄
혼향이 취할듯이 코끝을 간
지럽혔다.

《매일같이 어머니가 밤
늦도록 과학기술서적을 읽
군 하여 한번은 나무를 심
고 가꾸는 일이야 경험으로
도 되지 않는가, 밤이 깊었
는데 쉬라고 권고한적이 있

《매일같이 어머니가 밤
늦도록 과학기술서적을 읽
군 하여 한번은 나무를 심
고 가꾸는 일이야 경험으로
도 되지 않는가, 밤이 깊었
는데 쉬라고 권고한적이 있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인 온 나라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4월이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많은 사람
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찾아와 두봉화, 황
목련, 백목련, 고양나무를 비
뚝하여 갖가지 진귀한 나무

김선비녀성이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는 방도에 대해 농장원
들에게 설명해주고있었다.
기자과 만난 최연숙농장원
은 《선비어머니는 한때 우
리 농장에 자원하여 일하였
다.》고 하면서 년로한 몸이
지만 지금도 농장에 자주 찾
아오곤 한다고, 농사일에 어
찌나 밝은지 배우는것이 많
다고 말해주었다.

그날 선비녀성과 함께
일하였던 농장원들은 그가
행상모반의 어린 모가 열세
라 집에서 모포를 내다가 덜
어주던 일이며 가을철에는
한알의 낱알이라도 허실할
세라 실참에 열심히 벼이삭
을 쫓던 일, 교난의 행군시
가 풀죽을 쑤어먹으면서도,
배고프다고 조르는 자식들

《매일같이 어머니가 밤
늦도록 과학기술서적을 읽
군 하여 한번은 나무를 심
고 가꾸는 일이야 경험으로
도 되지 않는가, 밤이 깊었
는데 쉬라고 권고한적이 있

《매일같이 어머니가 밤
늦도록 과학기술서적을 읽
군 하여 한번은 나무를 심
고 가꾸는 일이야 경험으로
도 되지 않는가, 밤이 깊었
는데 쉬라고 권고한적이 있

《매일같이 어머니가 밤
늦도록 과학기술서적을 읽
군 하여 한번은 나무를 심
고 가꾸는 일이야 경험으로
도 되지 않는가, 밤이 깊었
는데 쉬라고 권고한적이 있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인 온 나라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4월이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많은 사람
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찾아와 두봉화, 황
목련, 백목련, 고양나무를 비
뚝하여 갖가지 진귀한 나무

《1994년 7월말이었습니
다. 하루는 선비어머니가
관리위원회에 찾아와 인민
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1994년 7월말이었습니
다. 하루는 선비어머니가
관리위원회에 찾아와 인민
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매일같이 어머니가 밤
늦도록 과학기술서적을 읽
군 하여 한번은 나무를 심
고 가꾸는 일이야 경험으로
도 되지 않는가, 밤이 깊었
는데 쉬라고 권고한적이 있

《매일같이 어머니가 밤
늦도록 과학기술서적을 읽
군 하여 한번은 나무를 심
고 가꾸는 일이야 경험으로
도 되지 않는가, 밤이 깊었
는데 쉬라고 권고한적이 있

《매일같이 어머니가 밤
늦도록 과학기술서적을 읽
군 하여 한번은 나무를 심
고 가꾸는 일이야 경험으로
도 되지 않는가, 밤이 깊었
는데 쉬라고 권고한적이 있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인 온 나라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4월이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많은 사람
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찾아와 두봉화, 황
목련, 백목련, 고양나무를 비
뚝하여 갖가지 진귀한 나무



김선비녀성과 그의 남편

봄 빛이 질어가는 모란봉



사진 본사기자 동창현

봄철에는 움직이기 싫고 온몸이 나른하며 졸음이 오고 소화도 잘 안되거나 호흡기계통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봄철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우선 로동과 휴식을 배합하면서 몸단련을 잘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자면 아침달리기나 체조를 하여 겨울동안 긴장되었던 근육을 풀어주며 몸이 환경에 빨리 적응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아침을 건느거나 편식하는 현상을 없애고 현미, 콩, 밀, 보리, 쌀과 같이

봄철의 건강관리

이비인후B군이 많이 들어있는 알곡들과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와 달걀 등을 섭취할때문에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폐기종과 같은 호흡기질병들이나 심장혈관계통질병, 알레르기성질환, 피부병, 눈병 등 여러가지 병이 올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통과 간, 콩팥, 골수계통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때문에 기상예보에 따라

김응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애국적부관이다. 어려서부터 군사부문에 특별한 흥미와 관심을 가졌던 그는 벌써 7살때부터 모래와 흙으로 성을 쌓고 나무가지를 깎아 군사들을 만들어 공방전을 벌리는 군사놀이를 자주 하였으며 13살때부터는 전쟁에 관한 역사책을 즐겨 읽었다. 그는 선봉장으로 부대를 지휘하여 합구문으로부터 성안으로 공격을 들이대어 왜적을 물리치는데 크게 용맹을 떨쳤다. 평양성탈환전투이후에도 그는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서 적을 치는 싸움에서 공군을 세워 임진조국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후에 그는 평안도를 비롯한 경상, 전라, 충청 등 여러 도의 병마절도사를 역임하면서 나라의 방비를 강화하여 왜적의 침략야망을 완전히 좌절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일생을 외재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바친 김응서는 60살을 일기로 생을 마쳤다. 통감군에는 오늘날도 애국명장 김응서와 관련한 유적과 유물들이 원상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1593년 평양성탈환전투에 류진명

역사인물

애국명장 김응서

사화

연안성의 쇠돌이 (1)

글 박태원, 그림 채대성

임진조국전쟁이 한창이던 때였다.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양을 강점하고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까지 들어가고 구로다 나가마사부대는 이곳 황해도일편을 휩쓸며 도처에서 로략질과 분탕질을 마음대로 하고있을 때였다. 마침 전에 연안부사였던 천 리조참의(리조의 정3품벼슬) 리정암이 연안에 내려와서 성을 수축하고 군사를 뽑아 훈련시키고있었다. 이때 연안성 남문밖에 사는 힘이 황소갈고 돌팔매 잘하기로 이름난 장쇠돌이도 장인과 안해를 데리고 성안으로 들어가서 병정이 되었다. 그는 땀을 흘리며 한달동안 조련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칼쓰는 법을 익혔을뿐 활은 쉽사리 손에 익혀지지 않았다. 《제길, 돌팔매로라도 잡기만 하면 장사지 꼭 활로 싸잡아야 맞인가?》 성미가 급한 그는 이내 활이 익히기를 단념해버리고

남들이 활과 화살통을 메고다니는 대신에 큼직한 돌주머니 하나만 허리에 차고 다녔다. 어느덧 삼복더위도 지나고 선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금풍이 소슬한데 날조차 잔뜩 흐려 연백빛 넓은 들에 음산한 기운이 가득하던 날 아침이었다. 오래 가문 촌길로 요란스러운 말발굽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한 사나이가 말을 급히 몰아 연안성 동문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옷깃하고 피나리보짐에 질신감발을 한 품이 말만 타지 않았다면 그저 심상한 파객으로 속을만 하였다. 문을 지키던 군사 하나가 말을 달려온 사람은 리정암의 령을 받고 멀리 왜적의 행편을 살피러 나갔던 군사였다. 그는 교백을 당기며 말을 잠깐 세우고 《왜적이... 왜

적이 지금 십리밖에 물러들어오고있네.》 이렇게 한마디 하고나자 가쁜숨을 미쳐 돌릴 사이도 없이 다시 말을 제쳐 읍내 한복판으로 통하는 큰길을 그대로 살같이 달려갔다. 그로부터 한식경이 지났을 가말가하여 관문앞에 모이러는 나팔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다. 비빈군사들이 군두박질하며 삼문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때 벌써 성안에는 왜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짙돌아 여기를 가도 웅성웅성, 저기를 가도 술렁술렁하였다. 이날 쇠돌이는 간밤에 번을 들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와 쓰러져서 코를 팔다 잠결에 나팔소리를 듣고 눈을 번쩍 떴다. 잠시 어리둥절해서 누운채로 귀를 장구었다. 《저게... 저게... 나팔소리가 아닌가?》 쇠돌이는 벌떡 일어나서 병거지를 찾아쓰자 허둥지

둥 봉당에 내려가서 신들메를 든듯히 조였다. 《또 나가우?》 앞뜰에서 빨래를 하던 안해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나팔소리 나지 않소?》 《간밤에 번 들었으니 오늘은 일 차례 아니유?》 《저게 어느 나팔소리가 아니라 바로 모이러는 나팔소리아. 해주에 와있는 왜

쇠돌이는 신들메를 다하고 일어서며 혼자말로 외우면서 문기둥에 걸려있는 돌주머니를 벗겨들고 삼작박으로 나섰다. 《여보, 나 좀 봐요.》 그는 안해가 부르는 소리도 못 들은채 하며 그대로 뒤도 안 돌아다보고 관문을 향하여 장달음을 쳤다. 관아에는 쇠돌이보다도 먼



놈들이 쳐들어오는지 모르지.》 《애구, 그럼!...》 아직 애리가 채 가지지 않은 안해는 새된 소리를 지르며 빨래방망이를 손에 든채 그의 앞으로 쏘르르 달려왔다. 《이놈의 새끼들, 오기만 해봐라. 돌팔매로 쟁그리...》

화살통을 메었거나 허리춤에 칼을 질러 그 기세가 백만대군이 눈앞에 물러내도록 어렵지 않게 막아낼것 같았다. 헌데 유독 쇠돌이만은 병장기를 몸에 지닌것이 없어서 행색이 허수무레해보였다. 《배천에 있는 왜적이 온다니 그럼 동문으로 물러들레지?》 《그렇겠지.》 《한쪽문만 쥘리가 있을라고? 4대문을 다 싸고 칠레지?》 《4대문을 다 싸고 치더라도 주장 동문을 칠레야.》 《그렇기도 쉽지.》 이렇게 여럿이 한마디씩 주고받을 때였다. 《그렇다면 동문은 내가 맡았다.》 하고 쇠돌이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러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아보며 일시에 웃었다. 대장 리정암은 이윽고 군사들을 선발하여 각 성문으로 보내고 성안 백성들가운데서 아녀자와 늙은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어서 군사들과 함께 성첩을 지키게 하였다. 그는 성안에도 또 령을 돌려서 직접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로인과 아녀자들은 각기 해자루를 많이 마련하는 한편 가마에 기름과 물을 펴뒀 풀이게 하였다.



김응서가 살던 집

기록밖에 모르는 선수
경기에서 매번 세계 기록을 돌파한 선수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실려갔다. 선수: 《사람의 체온에서 세계기록은 얼마입니까?》 의사: 《대단히 높습니다. 41℃입니다.》 선수: 《사람의 체온에서 세계기록은 얼마입니까?》